

#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총감독 뽑는다

### “전시·기획총괄”...외부 전문가 선임위, 후보 선발 도 “5월1일까지 공개 모집”...내년 11월까지 총괄

전남도가 '2025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전시·기획을 총괄할 총감독 공개모집에 나섰다.

전남도에 따르면 도가 주최하고 전남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는 전통문화예술을 부흥하기 위한 프로젝트인 '남도문예 르네상스'의 선도사업이다. 수목의 대중화·세계화를 꾀하고 수목 중심지로서 위상을 높이는 한편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

2018년부터 세차례 추진됐다.

총감독 응모 자격은 비엔날레 취지와 수목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국내·외 예술행사 총괄경력이 풍부한 사람이다.

국제적 수목행사 자리매김을 위한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전시·예술경영계 전문가다.

응모 희망자는 전남도, 전남문화재단,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누리집의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 전시

계획서 등 준비서류를 5월1일까지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사무국은 공정하고 투명한 총감독 선임을 위해 예술계와 전시·기획, 학계 등 다양한 외부 전문가로 선임위원회를 구성,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면접심사를 거쳐 후보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선임위가 전문성과 역량, 실행 계획, 창의성·차별성 등을 종합 평가한 후 이사회에서 최종 선발한다.

총감독은 내년 11월(행사 폐막 후 1개월)까지 '2025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의 행사 주제와 기본계획,

전시 기획, 국내·외 미술단체와 수목작가 섭외, 행사 마스터플랜 수립과 전시·연출 등을 총괄하게 된다.

김형수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사무국장은 “전시·기획 능력과 전문성을 겸비하고 국제적 감각을 고루 갖춘 유능한 전문가가 많이 응모하길 바란다”며 “남도문예 르네상스를 선도할 국제적 행사로 차려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는 내년 9월부터 10월까지 두달간 목포와 진도 등 전남 일원에서 수목작품 전시와 프로그램 운영, 학술심포지엄, 국제레지던시 등 다양하게 펼쳐진다. /김호 기자

# 해남 문예회관 개관기념 트롯콘서트 연다

## ‘해남을 담아 봄’ 공연...이달 30일 대공연장, 정미애 등 출연

해남군은 해남문화예술회관 개관 22주년을 기념해 트롯콘서트 '해남을 담아 봄'을 4월 30일 오후 7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한다.

'해남을 담아 봄'은 미스트롯3 경연 프로그램에서 4위에 입상한 해남출신 가수 미스김과 트롯 디바 정미애, 미스터 추 추혁진, 강민, 소원이 등이 출연해 군민들과 함께하는 봄맞이 콘서트를 마련했다.

트롯트 오디션 열풍의 주인공인 미스트롯과 미스터 트롯 출연자들이 화면을 벗어나 군민들을 직접 만나면서 가슴을 울린 노래와 화려한 무대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콘서트 티켓예매는 16일(화) 오전 10시부터 네이버를 통해 1인 2매까지 예매할 수 있으며, 관람료는 무료이다. 온라인 예매와 더불어 전화 예매(☎061-530-5137, 5139)도 가능하다. /해남·김동주 기자



# 해동문화예술촌, 4월 공연 '원도심 속 한옥에서' 개최

### 국악 관현악 리플라, 오는 20일 수준높은 공연 선배

(재)담양군문화재단(이사장 이병노)은 지난 3월 공연에 이어 '어쿠스틱 인 해동' 4월 공연을 진행한다.

2024년 '어쿠스틱 인 해동'의 공연 프로그램은 대중음악, 국악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무료입장으로

진행하고 있다.

두 번째 공연은 국악 관현악 공연으로 오는 20일 토요일 오후 3시 해동문화예술촌 주차장에서 열리며 전통예술의 뿌리를 가진 국악 연주

가들이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인다.

특히 이번 공연을 기획한 리플라는 다양한 장르와의 융합을 통해 음악의 질을 높이고 대중화를 꾀할 수 있는 음악을 선보인다.

'어쿠스틱 인 해동'은 대나무 축제 기간에 맞춰 11일에도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담양·강성국 기자

# 독자투고

## 봄철 '주의'가 필요하다



전 지언 /담양소방서 예방안전과

봄철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잇따르고 있어 화재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봄철 기간 부주의의 의한 화재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새삼스럽게도 겨울철보다 더 많은 화재가 발생하는 계절이다.

특히 봄철에는 건조한 날씨 그리고 강한 바람 등 화재가 발생하기 가장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작은

불티가 큰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생활 속에서 부주의의한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봄철 부주의의 화재예방을 위해 다음 몇 가지를 당부 드리고자 한다.

첫째 담뱃불은 합부로 버리지 말아야 하며 입산 시 절대 성냥이나 라이터러를 소지 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취사 시에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이뤄져야 하며 취사가 끝난 이후는 주변 불씨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

셋째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은 절대 금지이며 화재가 발생할 경우 빠르게 119에 신고해야 한다.

사소한 부주의로 화재 발생 시 많은 인력과 장비가 동원되고 환경적, 경제적 피해는 헤아릴 수 없다.

무엇보다 한번 잣대미로 변한 우리의 산림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

사전 예방을 통해 후손들에게 물려

줄 소중한 자산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화재예방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이지만 습관적 주의

## 아파트 화재 행동요령 '불나면 살피서 대피'



김 승 현 /장흥소방서 119구조대장

최근 5년간(2018~2022) 아파트에서 발생한 1만4230건의 화재로 180명의 사망자와 148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아파트 화재 인명피해 주요 원인은 연기흡입, 화상 및 밖으로 뛰어 내려 사망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경량칸막이, 대피공간, 하향식 피난구

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나 뿐 아니라 타인과 자연에도 큰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어쿠스틱 인 해동'은 대나무 축제 기간에 맞춰 11일에도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담양·강성국 기자

가 설치되어 있어도 설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사망하는 사례도 있었다. 특히 사망자의 행동 분석을 통한 외의 사실은 대피 중 사망한 자가 높은 수치를 보인다는 것이다.

소방청에서는 2023년 3월 발생한 아파트 화재의 '대피 중 연기흡입 사망사고'를 계기로 화재발생 장소와 불길, 연기 등 상황에 맞게 살피서 대피하도록 하는 아파트 화재 대피 행동요령 개선안을 마련했다.

아파트 화재피해 저감을 위한 새로운 행동요령 "불나면 '살피서' 대피"는 다음과 같다.

화재 발생 장소를 기준으로 자기집 화재인 경우 대피가 가능하면 계단을 이용하여 낮은 자세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고 대피 시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비상벨을 누르고 119에 신고하도록 한다. 단, 대피가 어려운 경우

대피공간 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하고, 화염·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한 후 틈새를 막는다.

119로 현재 위치와 상황을 알리고 구조요청을 한다.

자기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화재 발생 시 집으로 화염·연기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앞서 설명한 행동요령을 따르고, 화염·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 화재 사실을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세대 내에서 대기하며 화재 상황을 주시한다.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창문을 닫고 119로 신고한 후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한다.

장흥소방서에서는 아파트 화재 발생 시 적절한 판단과 행동요령 숙지를 위한 '우리 아파트 대피계획 바로 세우기' 캠페인을 4월 1일부터 미래1차아파트 등 2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 캠페인은 세대별로 가족 간 피난환경 조사, 화재 상황 가정, 대피계획 수립 등 토의를 통해 화재 상황별 행동요령을 숙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아파트 입주주민과 관계자분들도 나와 가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 아파트 대피계획 세우기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당부드린다.

2000년 11월 25일 창간(일간) 등록번호 광주가-8(2000년 11월 10일)		<b>호남매일</b>	www.homae.co.kr
발행·편집인 고계방		주필 서길원	편집국장 최춘의
대표전화 (062)363-8800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신안동 264-1번지)	
사 장 실 (062) 363-0027	편 집 국 장 (062) 363-8800	정·경 부 (062) 362-6116	사 회 부 (062) 362-6226
광 고 국 (062) 363-0005	편 집 국 (FAX) (062) 362-0078	문 체 부 (062) 362-6116	지 역 사 회 부 (062) 362-6226
서울취재본부 (02) 783-8117	인쇄취재본부 (062) 943-0140		
구독료 연달 : 10,000원 /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행요령을 준수한다	

## 새 희 망 새 언 론 새 천 년

# 푸른 언론의 길을 지향하는 호남매일과 같이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NEW AGE NEWSPAPER - THE HONAMMAEL

## 호남매일

- 호남인과 함께 하는 신문
- 정도를 걸어가는 신문
- 공익을 생각하는 신문

▶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 (062)363-8800  
▶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신안 264-1)  
▶ 기사제보·독자 의견 • TEL : (062) 363-8800  
• FAX : (062) 362-0078  
▶ 광고문의 • TEL (062) 363-0005  
▶ 서울지사(취재본부) : 010-8803-1472  
▶ 인터넷 참여 : <http://www.homae.co.kr>  
▶ E-mail : [honamnews@hanmail.net](mailto:honamnews@hanmail.net)  
[honammaeil@naver.com](mailto:honammaeil@naver.com)

**지국안내**

총 장...223-4123  
무 등...224-4188  
동 부...234-4235  
학 등...225-0651  
광 천...374-2120  
화 정...374-3713  
금 호...376-7153  
쌍 촌...371-9684

상 무...381-5310  
서 부...651-0004  
송 암...362-4102  
농 성...362-4102  
진 월...671-7276  
봉 선...675-5530  
중 앙...521-5640  
중 흥...433-1503  
양 산...574-3745  
문 암...521-4270

오 치...261-9461  
문 흥...261-9462  
일 곡...573-3200  
동 운...525-8894  
두 암...266-1920  
철 단...971-1920  
신 창...955-0451  
월 곡...941-9174  
송 정...010-5524-3638

**지사안내**

목 포...010-8718-1234  
순 천...010-9656-1383  
광 양...010-9656-1383  
나 주...010-5691-1976  
담 양...010-9067-4076  
곡 성...010-5602-1785  
구 례...010-8597-0053  
보 성...010-3626-4776

화 순...010-2430-5055  
영 광...010-9860-5489  
완 도...010-5066-4708  
장 흥...010-5665-8354  
신 안...010-3610-9153  
강 진...010-3775-2369  
장 성...010-3610-7824

함 평...010-3095-5842  
영 암...010-4604-3742  
무 안...010-2050-0136  
진 도...010-8525-4567  
해 남...010-3471-6542  
광 산...010-7613-4320  
고 흥...010-4644-8383